한국 禪불교사 인물로 읽다



주목! 학술서 - 정운 스님의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사〉

옛 선사들 행적 · 사상 조명
한국 선불교사 궤적 확인
한국禪 정체성은 '간화선'
도표 · 법맥도 일목요연 정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역사는 한 집단이 걸어온 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시작된 '불교'라는 역사의 궤적 속에서 뛰어난 수행자들은 불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 불교사 연구에서는 인물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의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사〉는 제목 그대로 역사 속 선사들의 행적을 통해 한국 선불교사를 조명한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을 종지로 하는 선종이다. 한국불교의 근간이 선이라고 본다면 선을 수행해 온 선사들의 삶이 곧 한국불교 역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선종과 선불교 역사에서 뚜렷한 옛 선사들의 면모와 사상을 각종 자료와 현지답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사〉는 5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이 땅에 선의 초석이 다져지는 시기, 즉 고대 동아시아 및 한국불교의 역사적 상황과 그 시대 선사들을 다루고 있으며, 제2 장은 이 땅에 선이 그 씨앗을 뿌리는 시기인 신라시대의 선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로 신라말 구산선문의 개산과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3장은 한국불교가 찬란한 꽃을 피운 고려 시대의 선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려 마지막 국사인 환암과 마지막 왕사인 목암에 이르기까지 기라성 같은 선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제4장은 숭유억불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한국불교의 맥을 잇고 발전시킨 선사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제5장은 초의, 경허 등 조선 후기 및 근세 선사들의 행적과 사상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선사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수행의 면모를 보여준다. 선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법맥을 이은 선사가 있는 반면 이와 무관하게 큰 성취를 보여준 선사가 있고, 국내에서 활약한 선사가 있는 반면 이역만리 타국에서 그 수행력을 인정받고 열반한 선사도 있다.

또한 중국 선종과의 법맥으로 볼 때, 한국 선불교의 주류를 이루는 임제종 법맥은 물론이고 홍주종 · 조동종 · 법안종 등 다양한 법맥의 선사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매력이다.

〈인물로 보는 한국 선사상사〉는 한국 선불교와 선사상의 다채롭고 긴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마치 핵심만을 간결하게 표현한 조감도를 그리듯 보여준다. 선사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사상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한국 선불교의 전체상이 그려지게 된다.

본문 곳곳에 정리된 도표와 법맥도는 자칫 선사들 개개인에 매몰되어 한국선의 흐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헤매지 않게,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서 있는 곳을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해준다.

또한 저자가 오랜 시간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현지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찍은 사진과 현장감은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이다.

일련의 연구를 통해 저자 정운 스님은 한국선의 정체성이 '간화선'에 있다고 본다. 스님은 "우리나라는 이론적으로는 조사선이지만 수행방법 상에 있어서는 간화선"이라며 "나말여초에 조사선이 전개됐고, 보조지눌 · 진각혜심의 주도로 간화선이 보급됐다. 고려 말기에는 태고보우 · 나옹혜근 · 백운경한이 직접 송나라에 들어가 법을 받아와 간화선을 전개했고, 몽산덕이의 간화선 선풍이 유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서에 마지막에 기술한 승가교육 변화, 한국선 정립 등의 제언들은 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승인 저자가 종단에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국내 最古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처리 시작

국립문화재硏 벽화6점 이송

최신 기법 조사 · 연구 진행돼
오는 2026년까지 완료 예정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전시 중인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박리, 박락과 표면 오염이 심각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오는 2026년까지 보존처리에 들어간다.

국내에서 가장 최고(最古) 사찰 벽화인 국보 제46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보존처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직무대리 박종서)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벽화인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보존처리에 착수한다"고 6월 18일 밝혔다.

경북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우리나라에서 화엄종을 처음 시작한 의상대사(625~702) 초상을 모신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의 안쪽 벽면에 그려진 불교 회화로, 목재 골조 위에 흙벽을 만들어 다양한 안료로 채색한 그림이다. 벽화는 조사당이 건립될 당시인 1377년(고려 우왕 3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벽화에는 제석천(帝釋天)과 사천왕(四天王), 범천(梵天)이 6폭으로 나누어 그려져 있으며, 고려 시대 대표적인 벽화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벽화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 경 조사당에서 해체 · 분리됐고 6폭의 벽화는 각각 벽체 뒷면 일부가 제거되고 석고로 보강되어 나무보호틀에 담겼다. 표면의 균열부위에도 석고로 보존처리 된 바 있으며, 이후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과 보장각을 거쳐 지금까지는 성보박물관에 보관 · 전시되고 있다.

현재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보존처리 재료인 석고로 인해 백색 오염이 벽화면 전반에 발생하였으며, 과거 보존처리에 사용된 재료가 열화되면서 채색층의 박리(剝離) · 박락(剝落)과 표면 오염도 관찰되는 상태이다.

실제, 지난해 문화재청이 실시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서도 벽화의 보존처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올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면 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는 6월 2일부터 벽화 표면 보양작업을 시작해 벽화 6점을 포장했으며, 17~18일 양일에 거쳐 대전 소재 국립문화재연구소로 이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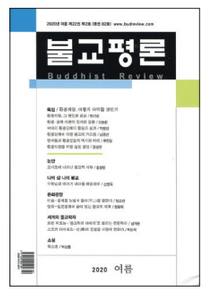
이송된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오는 2026년까지 보존처리를 진행한다. 고려 후기 벽체의 구조와 벽화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며 일련의 연구성과는 심포지엄과 자료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환경, 포스트 코로나 핵심 요소"

〈불교평론〉, '환경재앙 극복' 특집 눈길

정성헌 "'공생' 코로나 회복코드"
남궁선 "'생명방생' 강령 만들자"
유정길 "사찰 생명공동체 형성"



환경위기는 위기 수준을 넘어 이미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촉발한 환경위기의 근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계간지 〈불교평론〉은 통권 82호에서 '환경재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특집으로 다뤘다.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 방안' 기고글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근본적인 대책은 적극적인 자연복원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공생 양식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생명의길, 대전환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생각의 전환 △소유가 행복을 불러오지 않음을 깨닫는 생활의 전환 △지구촌 인류의 생각을 바꾸는 세상의 전환 △생명사회와 생명문명으로의 대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나무심기, 유기농 중심 생명의 밥상차리기, 환경보전을 위한 아껴쓰기 등을 제시했으며, 정부에도 환경세 내지 탄소세를 신설하는 산업 구조변화 촉진도 촉구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남궁선 박사(동국대 불교학)는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 발제에서 "역설적으로 불교는 환경 악화 책임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은 '한국불교 환경운동의 역사와 미래'서 "과거 빈그릇 운동이나 삼보일배, 오체투지 운동도 불교를 기반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듯, 사찰 숲 지키기 운동이나 버드나무 심기 방생, 철새먹이 주기 방생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며 "실상사와 같이 농업 기반 마을공동체를 사찰에 따라 실천하는 새 모델 개발, 전지구적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 불교 생태주의 사상과 이념 개발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환경 특집에는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의 '환경재앙, 그 원인과 실상', 신승환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의 '환경 · 생태 이론의 전개와 동향',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의 '국내외 환경단체의 활동과 성과' 등 국내외 환경운동과 관련된 기고글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2년 연구 결정체 〈역주 정법안장 강의〉

보광 스님, 6월 6일 역주 · 번역본 3,4권 펴내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32년간 역주와 번역해 온 〈역주 정법안장 강의〉 3,4권이 6월 6일 출간됐다.

〈역주 정법안장 강의〉는 보광 스님이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에 재직하면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의 교재로 선택하고 역주와 번역, 강의했던 것을 묶은 것으로 2000년 6월 6일 1권이, 2012년 6월 6일 2권이 출간된 바 있다. 무려 8년 만에 진행된 이번 〈역주 정법안장 강의〉에는 도겐 선사의 법어에 나오는 출처를 자세히 밝혔고, 번역도 쉽게 되었으며, 강의는 한층 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3권에는 정법안장 18 〈심불가득〉권에서 24 〈불교〉권 까지가, 4권에는 25 〈신통〉권에서 30 〈행지(하)〉권까지가 묶였다.

보광 스님은 지난해 동국대 18대 총장 퇴임 후 1년 동안 〈역주 정법안장 강의〉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주 윤독과 교정, 증의, 색인 등을 진행해 왔다.

노덕현 기자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

법구경



국문학자의 손길이 닿은, 적절한 현대어 선택과
운율을 고려한 번역! 늘 옆에 두고 경구처럼 읽고 되뇌면서
삶과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가르침!

이종기 옮김/양장/360쪽/값 18,000원

명나라 4대 고승 감산대사의 주석!

수능엄경통의 1·2



불교의 철리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수행자들의
필수 지침서! '일심삼관一心三觀의 종지'로 원융회통한,
"교법의 준칙이요 선종의 정안正眼!"

감산 덕청 지음/장순용 역주/양장/1권 27,000원/2권 25,000원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제5대 뻰첸라마의 가르침!

보리도차제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실천 수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이자 안내서!

뻰첸라마 롭상예쎄 지음/법장 옮김/양장/496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